

기업과 예술의 만남... 지역문화 꽃피운다

스페이스K-광주
갤러리 생각상자
갤러리 리체
은암미술관

전시공간 무상 제공... 기업 메세나운동 활발

최근 기업 메세나(mecenat) 운동이 활발하다. 미술관과 갤러리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렇게 내어준 미술관과 갤러리는 비영리문화공간으로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호흡한다.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오는 길목, 동구 소재 동 한센병원 옆 한 건물 1층 소원도 너머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인쇄용지 유통 기업인 종이와사람들 건물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생각상자에 전시된 작품들이다.

갤러리 생각상자는 지난 2011년 개관했다. 종이와사람들 대표이자 누리문화재단 전 이사장이기도 한 조상권씨가 회사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1층 공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내어놓은 것이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건물 2층에 갤러리를 위한 수장고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회사가 갤러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갤러리 생각상자는 공공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대관료가 없다.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과 신진 작가 발굴 기획전을 위주로 연다. 갤러리 생각상자 청년작가지원전시 공모에 선정돼 개인전을 연 박성완씨는 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2월28일까지는 서양화가 이매리

씨 개인전 'Portraits of shoe'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BMW매장 2층에 위치한 갤러리 스페이스K-광주는 코오롱이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곳이다. 스페이스K-과천, 서울 등 전국 5개 스페이스K 갤러리 가운데 4번째로 문을 열었다. 110여 평에 이르는 전시 공간은 전국 5개 전시공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갤러리 스페이스K-광주는 문화 예술 지원과 나눔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설박, 안희정, 박성완 등 지역 신진작가 7명이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후에 스페이스K는 서울에서 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작가의 작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운 셈이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그림 달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공연도 여는 등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각가 배영경씨의 '목시' 전(~15일)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2-370-5948.

미디어아티스트 조용신씨의 개인전 'X-BOX STORY'가 열리고 있는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도 보성건설이 무상으로 내어준 공간이다. 지난 2010년 6월 보성건설 설립자인 이기승 회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내뱉었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역 작가들과도 활발

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암미술관도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비영리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기획전과 초대전 등 20여 차례 가까운 전시를 열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기를 퍼트리고 있다. 이달 중에는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전시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1-5299.

중이와사람들 건물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생각상자는 소원도에 비친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쉬어가게 한다.

남구 진월동에 있는 갤러리 리체는 진야건설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 때문에 갤러리를 오픈 할 때부터 개인 화랑과 갤러리의 개념을 탈피해 작가들의 지원을 위한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작품을 걸고 싶은 젊은 작가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팝플릿



갤러리 리체.



중이와사람들 건물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생각상자는 소원도에 비친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쉬어가게 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도 무상으로 만들어 준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또다시 젊은 작가들의 작품 구입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리체와 미술모임 'ART-FUN' 회원들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 600만원을 남구에 기탁하기도 했다. 조근호씨 개인전(~26일)이 진행중이다. 문의 062-412-0005.

은암미술관 채종기 관장은 "미술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벤츠를 공짜로 주는 것과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공간에 걸맞는 전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달동네 세 남자 인생역전 이야기

로맨틱 코미뮤지컬 '달콤' 23일까지 동산아트홀

행복한 일이 없을 것만 같은 달동네에 '짱'하고 발이 들었다. 우울하기만 했던 세 남자의 인생은 활짝 펴는 것인가.

유·스퀘어문화관이 'Good 공연' 아홉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로맨틱 코미뮤지컬 '달콤'(달동네 콤플렉스)은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달동네 도서 대여점. 인생 한방을 노리는 인기, 늘 생각만 할 뿐 행동에는 굼뜰 태성, 모태 솔로인 서점 주인 특남에게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다가온다. 여기에 인기와 여자, 태성과 소연의 러브 라인이 어우러지면서 극이 흘러간다.

다소 산만한 극 구성이 아쉽기는 하지만 배우들의 능란한 연기와 노래, 재치있는 대사들이 있어 작품을 즐기는 데 큰 무리는 없다.

특히 주모, 회사 여자 산배까지 1인 3역을 맡은 김득남 역의 박명훈과 이한샘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시종일관 즐겁게 한다.

멜로 라인에서 흐르는 뮤지컬 넘버들이 감정을 자극하지 못해 아쉬운 반면, 인생 한방을 꿈꾸는 세 남자가 부르는 경쾌한 곡들은 갖가지 계속 맴돈다.

수시로 객석에 들어오는 배우들은 관객의 반응을 그대로 극에 삼입, 유쾌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재미 두배다. 공연은 동산아트홀에서 오는 23일(18일 공연 없음)까지 계속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경일 사전예매 20%, 금호고속 승차권 소지 30% 할인).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길' '부용산'... 산을 노래해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5일 호신대 티브라운

'부용산 오리 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목포 향도여중 교사였던 박기동씨가 글을 쓰고 안성현 작곡가가 멜로디를 부친 '부용산'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곡이다.

'부용산'을 함께 배우고 불러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는 '산을 노래함'을 주제로 2월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

이번 행사에서는 '옛 동산에 올라', '산길', '산', '청산에 살리라', '산노을', '그리운 금강산' 등 산을 주제로



안성현 박기동

한 곡들을 함께 부른다. 또 장력기 곡 '산아, 산아, 한라산아'를 배워본다. 빛고을시니어앙상블 중창단, 박현, 김우진, 나인희, 박진영씨 등이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두번째 금요일 열리며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먹거리가 제공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미있는 우리동화 다시 읽어요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 출간

국내 대표 아동문고인 창비아동문고의 주요 작품을 모은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가 나왔다.

'창비아동문고'는 1977년 이원수 동화집 '피마 육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70권이 출간됐다.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는 지난 35년간 가장 사랑받은 장편동화 25권과 국내 아동문학평론가들이 뽑은 동

화집 10권 등 모두 35권으로 구성돼 있다.

동화집 10권에는 국내 창작동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마해송부터 현덕, 이원수, 권정생, 정재봉, 주목밖은 신에 김민형 등이 선보인 단편 동화 81편을 담았다.

장편동화 25권은 창비의 어린이 문학상인 '좋은 어린이책' 수상작과 기



관 및 단체의 추천·권장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권정생의 '몽실 언니',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 황선미의 판타지 동화 '샘마을 동당개비',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김남중의 '기차길 옆 동네' 등이 주요 작품이다. /연환수

광주문화재단 관광탐험대 1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명인·명소·명품 등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제3기 문화관광탐험대 10명을 모집한다.

3기 탐험대는 기존 온라인 카페 대신 탐험대 블로그를 운영, 대원들이 발품을 팔며 조사한 글과 사진을 연재해 정보 공유의 용

이성을 높이고 '문화관광 기록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탐험대원에게는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무료 관람 기회 및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광주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광주 거주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5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킴 www.jeju.be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물)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 3일자 선녀와 나무꾼, (현지직물) 몽골리안마상소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입장료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물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설연휴기간 3만원추가)

전국립광주박물관 김정현 학예사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역사여행

일 정 2013년 2월 16일(토)~2월 17일(일)

지 역 군산 전주 지역

강 사 김정현 선생님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북" 대표)

목 적 한국역사의 바른 이해
재미있는 한국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금 액 목포 이마트출 14만원
광주 문예회관 후문 앞 출발 13만원

캡트 포함사항: 차량비, 한옥마을 숙박비 4인실기준
(3인실 9,000원 / 2인실 25,000원추가)
관광지 입장료, 식사 4식, 자료집

예/약/문/의: **1588-3925**